# 수익금 고스란히 불교발전에 '회향'

### (주) 조계종출판사 'VIP용 달력' 판매 수익금 4000만원

### 아름다운동행 전달 종단사업체 모범 창출

### 호국연무사 불사 부족 불사금 10억원 모연에도 불 지필 듯

조계종출판사는 지난 6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수익사업총괄특보 각운스님, 조계종출판사 김용환 사장. 신재호 기자

종단 수익사업에 적극 매진하고 있는 조계종출판사가 또다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대작불사에 기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조계종출판사(사장 김용환)는 지난 6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일컬어지는 군포교의 가장 핵심인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인 호국연무사는 지난 5월 사부대중의 염원을 담아 신축불사를 완료하고 낙성했다.

총 125억원이 소요된 대작불사였지만 사찰과 스님, 불자들의 성원으로 90%에 이르는 모연이 이뤄져, 정부 도움 없이 세워진 한국불교 포교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아직 10억원의 불사금을 갚지 못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2827호 참조〉 이런 와중에 조계종출판사의 기금 전달은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가 되고 있다. 특히 불사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모연 분위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기금 전달은 조계종출판사가 올해 처음 추진한 'VIP용 달력' 제작 및 배포에 따른 수익금을 고스란히 내놓은 것. 조계종출판사는 총무원 재무부 소속이던 사업팀을 이관 받아 유통사업부로 재정비하는 등 종단 수익 창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헛되이 쓰지 않고 한국불교와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될 목적사업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4월 수익금 1억5300만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도 조계종출판사는 수익사업인 상조사업과 생수판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승려복지기금 등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회향에 보탬이 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수익사업총괄특보 스님과 조계종출판사 사장 등 임직원이 종단 수익 확충에 열심히 노력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하며 "종단 내 필요한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수익사업총괄특보 각운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 김용환 조계종출판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 '글로컬리티 한국성' 고유성의 탐색 주제

### 동국대 인문한국 연구단 5일 '1단계 성과' 발표회

동국대학교 인문한국(HK) 연구단이 첫 연구성과 발표회를 갖는다. HK연구단은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고유성의 탐색'을 주제로 오는 5일 6편을 논문을 통해 1단계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열릴 발표회 첫 논문은 박인석 HK연구교수의 '도륜(道倫)의 유식(唯識) 오종성설(五種姓說)의 이해와 특징'이며(논평,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두 번째 논문은 이종수 HK연구교수의 '조선시대 연등회의 존폐와 그 문화적 전승'(논평,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한국학부 교수), 세 번째 논문으로 김영진 HK연구교수의 '무량수경 신라주석에 보이는 하늘관념의 변용과 업설'(논평, 김영미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네 번째 논문으로 이자랑 HK연구교수의 '제정일치적 천륭(天降)관념의 신라적 변용'(논평, 최연식목포대 사학과 교수), 다섯 번째 논문으로 김기종 HK연구교수의 '신라시대 불교금석문에 나타난 변체한문의 성격과 그 의미'(논평, 김상일 동국대 국문과 교수), 최종 여섯 번째 논문으로 고승학 HK연구교수의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원력(願力)의 의미'(논평, 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HK연구단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4년 8월까지 1단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아젠다는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담론'이다. 연구는 글로벌리티와 로컬리티를 합성한 '글로컬리티(glocality)'에 맞춰,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조화시켜 온 불교의 글로컬리즘이 한국의 지역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문화확장의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접근이다.

이중 1단계의 연구과제는 '원형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단은 '사유와 가치' '종교와 국가' '문화와 교류' 등의 세 영역에서 각각 2주제씩, 총 6주제에 관한 논문을 이번에 발표한다.

김종찬 기자 kimjc00@ibulgyo.com

# "바닷물로 불기운 잡는다"

### 해인사, 가야산 12곳에 소금단지 묻으며 '기원'

### 시대에 맞는 문화로 재창출 되길 '기대'

해인사는 지난 6월24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금단지를 묻는 의식을 치렀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선각스님)가 음력 5월5일 단오를 맞아 화재로부터 사찰을 지키기 위해 소금단지를 묻는 의식을 치렀다. 해인사는 지난 6월24일 대적광전 앞과 매화산, 가야산 마애불 앞 등 총 12곳에 단지를 묻었다. 100년 이상 이어져온 이 행사는 장소가 외부에 알려지면 효험이 없어진다고 해 그동안 알리지 않고 진행하다 몇 년 전 공개했다.

스님들은 매년 매화산 남산제일봉에 소금 단지를 묻고 있다. 해인사 창건 이후 사찰 역사를 기록한 '해인사지(海印寺誌)'에 그 까닭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해인사는 1695년부터 1871년까지 176년 동안 7차례에 걸쳐 큰 불이 나 피해를 입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해인사 남쪽에 위치한 남산제일봉이 화산(火山)이기 때문에 정면대립한 해인사로 화기가 날아들어 불이 자주 났다는 것이다. 봉우리 형상이 불꽃처럼 생긴 것도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산으로 여겨졌다. 1817년 여섯 번째 화재 이후 대적광전을 재건할 때 좌향이었던 건물 방향을 서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즈음부터 남산제일봉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바닷물로 불기운을 잡는다는 뜻에서 소금 단지를 묻었다. 이후 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 단오에 소금을 묻는 것도 일 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에 소금을 묻어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다. 해인사 전 대중 스님들은 경내에서 두 시간 이상 떨어진 매화산에 해마다 올라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행사에는 주지 선각스님을 비롯해 선원, 율원, 강원스님, 신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의식을 마친 스님들은 합천군청 공무원, 합천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친선 축구경기를 가졌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월스님은 "무생법인의 도장을 바다의 도량에 찍어 마장이 없도록 기원하는 행사"라며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의식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문화로 재창출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해인지' 앱북 출시…무료 보급

### 시공 구애받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 전할 새로운 포교시대 열어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선각스님)가 〈월간 해인〉 '앱북(appbook)'을 제작해 무료 배포에 나섰다. 해인사는 지난 6월29일 "최근 국내 스마트패드 사용자가 2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포교 수단으로 '월간 해인 앱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간 해인 앱'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여타 전자책과 달리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이패드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와 웹 모바일 버전도 이달 안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이용자가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해인〉 앱북 초기화면.

〈월간 해인〉은 3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잡지다. 1982년 3월 강원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매월 15일 발간하다 1985년 3월부터 월간 간행물로 개편했다. 주지 스님 법문, 불교교리, 역사이야기, 사진, 그림, 사찰소식 등 읽을거리가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앱북에서는 올 1월호부터 깔끔하게 편집된 화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서비스 지원업체 다나 최대종 대표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여타의 전자책들과 비교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향후 해인사와 논의해 동영상 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제품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문자서비스 수신자 모집

불교신문(www.ibulgyo.com)에 보도되는 주요 기사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받고 싶은 분은 이메일로 이름(또는 법명)과 소임, 전화번호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할 곳 : munja@ibulgyo.com

• 효종원 오미자 청(淸) – 4~5배 희석용
500ml x 1병 | 38,000원
• 효종원 오미자 수(秀) – 파우치 음료
100ml x 30포 | 43,000원
100ml x 60포 | 82,000원

제품구입 및 문의 〈단체구입 별도상담〉
1577-0788
www.hyojongwon.com
효종원(주)

구입처 신세계백화점 전국지점, 온라인쇼핑몰 (롯데i몰, 롯데닷컴, CJ오쇼핑, GS SHOP, NS쇼핑, 현대Hmall, 신세계몰, 푸드마트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동일상품 판매

본사.농장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182 연구소.공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9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영/혼/을/깨/우/는
산사의 여름을로

템플스테이에 '효종원 오미자'와 건강동행 하세요

백두대간 문경 해발 700m 천혜의 자연조건
효종원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최상 품질의 오미자로 생산합니다.

오미자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거담, 자양강장제, 수렴제에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기관지 천식, 뇌졸증, 심혈관 질환 예방, 혈액 순환 개선 기능이 탁월합니다. 또한 당뇨병, 건망증, 만성 기침 등에 좋으며, 갈증해소 및 여름철 보양 효과에 뛰어납니다.